

경북도의회, 대구경북행정통합 민주적 합의 절차 반드시 필요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 “민주적 합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3가지를 요구했다.

도의회가 요구한 3가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 △행정통합의 실효성,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 위한 전문가 그룹 참여 토론회 △경북지사, 경북도의회회장, 대구시장, 대구시의회 의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이 함께하는 회담 개최와 언론매체를 통한 공개 토론회 등이다.

그동안 무산위기에 놓였던 대구경북행정통합은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안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

면서 탄력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내놓은 중재안에는 통합자치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한다.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다.

정부가 통합자치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경북도의회는 행안부가 제시한 6개 핵심 쟁점 중재안 중 경북과 대구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지만 통합자치체의 분청 및 소방본부의 소재지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합동 의원총회에서 정하도록 미뤄진 것에 대해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용 기자



月刊 정치의시림 곧 독자들 결의로 !

월급 외 연간 2천만원 넘게 버는 공무원 1만명...

교육 공무원 5031명 가장 많아
위법적인 사항 조치 대책 시급



김선민 의원

우리나라 공무원 121만명 중 월급 이외에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수 외 소득월액의 상한선인 연 7억1000만원이 넘는 공무원도 7명에 달해 소득 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사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 가입자 121만 명 중 보수 이외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95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수 외 소득월액의 상한선인 월 소득 5981만원(연 7억1000만 원)이 넘는 공무원도 7명에 달했다. 현재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이 별도의 영리 활동을 보다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에 한해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별도의 소득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2022년 8월까지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됐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는 '연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강화돼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의 수는 2021년 3179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9578명으로 늘어났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을 지역별, 근무지별로 살펴보면 교육공무원이 50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공무원이 2507명, 국가공무원이 129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선인 월소득 5981만원이 넘는 공무원은 교육공무원 4명, 국가공무원 3명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의 영리 행위 및 겸직 행위로 처벌 받는 중앙공무원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중앙부처들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2022년 19건, 2023년 19건, 2024년 9월 1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공무원 자료에 대해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상 공무

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를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보수 이외에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1만여 명이 있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며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를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만큼 정부는 원칙에 따라 보수 외 소득월액 자료를 검토해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단풍인 줄 알았더니 재선충병?"... 산림 황폐화

산림청 근본대책 촉구 잇따라
조경태, 확산세가 만만치 않아
방제 투입 805억원 예산 한계



조경태 의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 의힘 조경태(사진) 의원은 16일 정부대전 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감에서 "대구 강원 전남 경남 등지 확산세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투입된 805억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비수도권 지역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견됐으나 지금은 청정 지역으로 바뀐 세종지역 처럼 의지만 있으면 박멸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단풍인 줄 알았더니 노란 잎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조사된 지역이 전국적으로 145개 시군이나 된다. 산림청이 정확한 진단과 지원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사목 처리는 물론 수목치료 기술자 양성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상수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박멸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방제 훈증 장비가 잘못 된 것 아닌가"고 따

졌다. 또 "계속해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발생하면서 벌목업체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재선충 천적인 가시고치벌 방제 및 백신 개발에 진척이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선충은 크기가 1mm 안팎의 실 같은 선충으로 솔수염(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 나무에 침투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킨다. 피해수종은 소나무류와 잣나무 등이며 치료약이 없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재선충병을 옮기는 북방수염하늘소의 애벌레를 공격하는 기생벌을 확인했다. 기생천적은 가시고치벌이다. 가시고치벌은 북방수염하늘소의 어린 애벌레(1-2령충)에 기생하면서 체액을 빨아먹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5년간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년 확산 추세를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방제 방법으로 소나무재선충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14년 217만ha까지 치유했던 소나무재선충병 면적이 30만ha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극심한 피해를 입힌 뒤 잠잠해졌다가 다시 재유행하는 코로나19처럼 늘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전략 수립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적용해 산림을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산림청의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신규 과제 추진 현황.(사진-임호선 의원실 제공)

임상섭 산림청장 국감서 고개 숙였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부실
임미애, 예천서 작년 5명 사망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엉망...



임미애 의원

임상섭 산림청장이 고개를 숙였다.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지난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속출과 부실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가 비판을 받았다. 임미애 의원은 "소홀했고 잘못됐다"는 거인정한다. 산사태로 돌아가셨거나 피해입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사진) 의원의 "작년 예천에서만 벌어졌던 산사태 5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경북북부권 전체에서 23명이 돌아가셨다. 당시 현장의 참혹함을 잊을 수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 임 의원은 "당시 언론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었다. 오랜 비로 붓게 되었는데 알려졌다고 보도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 들였다"면서 "하지만 올 6월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자연적인 산사

태가 아니었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를 확인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산림청과 한국지산기술협회에서 보여준 도덕적 해이가 너무 나쁘게 나왔다"면서 "우려지역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겨가며 봐야 하는데 B지역은 가지도 없고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곳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그는 또 "우려지역 미지정 등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면 이미 사방사업으로 지정된 곳을 취약지역으로 변경하는 일도 있었다"며 "이런 일이 2023년 한 해에만 있었을 것"이라고 시비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사태 위험 조사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장기간 취약지역으로 미지정해 민가와 연접해 산사태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기초조사서 제외, 취약지역 지정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취약지역 사방사업 실시율이 높아 보이도록 사방사업이 이뤄진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산사태 영향반경에 있는 위험구역에서의 주민대피 및 통제체제 구축도 미흡해 지적을 받았다.

작년 담임 교체 203건 3년새 2.9배 ↑

학부모 요청 교체 담임 79명
같은 기간 무려 4.6배 증가...

학부모 등쌀에, 혹은 스스로 담임을 내려놓는 교사가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교원단체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근절하는 보안 입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급증한 담임교사 교체 건수와 관련해 성명을 내 "교권 추락은 물론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은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담임 교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담임 교체 건수는 203건으로 3년 전인 2020년(71명)과 견주 2.9배나 늘어났다.

지나해 담임 교사 본인 요청에 따라 124명이 담임을 내려 놨다. 3년 만에 2.3배 늘었다. 학부모 요청으로 교체된 담임은 79명으로 같은 기간 4.6배 증가했다. 교총은 "실제로 교체된 수치가 이 정도면 악성 민원과 함께 담임 교체 요구, 협박을 받은 교사는 이보다 최소한 몇 배는 많을 것"이라며 "사립학교를 고려하면 교체 건수나 요구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임 교체 사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학부모 민원 절차와 교사 보호 및 교권 침해 예방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 정원 서명을 받고 있다.

경북대병원 2년 6개월간 '노쇼 환자' 월 평균 3000명

백승아, "의료공백 속
행·재정적 손실 커"

의료공백에 더해 진료예약을 예고 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2년 6개월 사이 집계된 노쇼 환자는 9만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 의료대란과 의료진 공백으로 경영 위기와 환자 치료 어려움에 노쇼까지 심각한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노쇼)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전체 예약 환자 2000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0%, 15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13.9%(21만명), 제주대병원 9.7%(15만명), 충북대병원 9%(13만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국정감사 취재반

산사태 대응 연구 사업 개인 이익 수단 전락

임호선 의원, 산림청 산사태
연구 사업 부티기업 선정은
같은 대학 교수 기업 챙기기
사업으로 전락... 의혹 제기



임호선 의원

산림청이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산사태 대응 연구 사업'에 부티기업을 선정, 공공사업이 개인 이익 수단으로 전락했다.

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사진) 의원이 공개한 산림청에 대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올해 초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의 신규 과제 6개(조림·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목재산업·단기소득임산물)을 선정하고 총 220억 원의 정부 출연금 투입을 결정했다.

이번 가을 봉화군 관광지로 떠나볼까...

가을철 가족들과 봉화군 관광 추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희귀식물 다채 분천 산타마을 1년 크리스마스 감성 선유교 올라 주변 경치 절경 눈앞에

가을날 뭐 하고 놀까,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반가운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경북 봉화의 추천 관광지 몇 곳을 소개한다.



백두대간수목원에서 재밌게

봉화군 춘양면에 자리잡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전체 크기가 약 5179ha, 1500만 평으로 전 세계에서도 두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희귀·특산식물을 수집·보존하고 있는데 희귀식물은 313종, 특산식물은 164종에 달한다.

이 밖에도 전시원, 백두대간의 상징 동물인 백두산 호랑이, 세계 최초의 야생 식물종자 영구 저장시설 시드 볼트(seed vault)를 보유하고 있다.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곳은 '호랑이숲'이다.

호랑이숲은 멸종위기종인 백두산호랑이의 야생성을 지키기 위해 자연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전시원으로 면적은 총 3.8ha(약 1만 1000평)로 축구장 6개 크기와 맞먹는 거대한 규모다.

국내에서 가장 넓은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이 호

랑이숲에서 6마리의 백두산 호랑이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90분 동안 수목원 내 주요 전시원 30곳을 탐방하는 '달려라 어흥카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전문 숲해설사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고산식물의 안식처 '알파인하우스'부터 인기 전시원인 호랑이숲도 관람할 수 있다.

분천산타마을에서 신나게

분천 산타마을은 봉화군 소천면 분천역에 위치한 곳으로 백두대간이라는 자연 자원과 동심을 자극하는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접목해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됐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가 함께 기다리는 즐거운 날, 크리스마스를 여름에도 느껴볼 수 있으며 새파란 여름 하늘과 새빨간 산타의 모습들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자아낸다.

입구에서부터 아기자기한 산타 조형물들이 반기고 있으며 곳곳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 포토존이 있어 예쁜 사진들을 남겨볼 수 있다.

분천산타마을 내 산타우체국에는 관광객들을 위해 산타우체과 모자가 마련돼 있어 산타로 변신해 사진을 찍어볼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에 받아볼 수 있는 엽서 쓰기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선유교와 범바위 전망대에서 여유롭게

안동의 도산서원에서 봉화를 거쳐 태백에 이르는 35번 국도는 세계적인 여행정보지 미술랭그린 가이드가 유일하게 별을 준 한국 최고의 길이다.

구불구불 강변을 따라 청량산입구에서부터 낙동강을 거슬러 명호면사무소로 가는 방향에는 길이 120m, 폭 2.5m의 봉화선유교가 있다.

선유교에 올라 주변 경치를 둘러보면 청량산의 풍경이 낙동강과 어우러지며 숲을 일렁이는 옥빛 강물까지 감탄이 절로 나오는 절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선유교 끝에 도착하면 작은 정자가 있어 햇살도 피



범바위 전망대

하고 산바람을 맞으며 잠시 쉬어갈 수 있다.

35번 국도를 따라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삼동재 호랑이상 경관 쉼터'라는 팻말이 보이는데 봉화에서 낙동강 줄기를 가장 잘 굽어 볼 수 있는 곳인 범바위 전망대다.

범바위 지명은 고종 때 선비 강영달이 선조 묘소를 바라보며 절을 하다 만난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았다는 얘기에 유래한다.

그래서 전망대 옆 바위 위에는 호랑이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전망대에서는 낙동강이 만든 물돌이 모습과 그 중심으로 태극문양을 하며 돌아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맑은 하늘 아래 눈앞에 펼쳐진 탁 트인 경치를 배경 삼아 사진을 남기기에 좋다. 전상기 기자



산타마을



선유교



수목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정한 슬로건입니다.

'2024 대구정원박람회' 시민과 정원이 통했다



11~15일 38만명 방문해 성황리 마무리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정원사 양성 종료 후에도 108개소 10월 말까지 전시

'2024 대구정원박람회'가 11일 개막 이후 5일간 38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등 실질상부한 대구지역 최대 박람회로 자리 잡았다.

'파워풀 대구'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정원 르네상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원박람회에서는 108개소의 정원을 조성했다.

정원산업전, 문화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각종 행사,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시민이 직접 정원을 만들고 참여하는 '2024 대구정원박람회'에 많은 시민이 방문해 정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확인, 시민과 함께 하는 정원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람회에서는 대구시에서 양성한 시민정원사들이 큰 역할을 했다.

시민정원사들은 단체 정원 해설투어를 진행해 정원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에게 정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정원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했다.

대구시는 시민정원사 선발 및 기본교육, 심화교육 등을 거쳐서 정원설계 및 시공, 정원해설 등의 역량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한다.

양성된 시민정원사들은 정원일타강사, 정원조성 및 관리, 정원행사 시 봉사활동과 해설 등의 활동으로 시민과 정원의 접점을 넓혀 준다.

대구시는 시민 일상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가로정원, 한평정원 등 다양한 실내외 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다 함께 즐기고 가꾸는 정원을 확대한다.

'2024 대구정원박람회'는 종료됐지만 하중도에 조성된 정원은 10월 말까지 전시한다.

홍만표 대구시 산림녹지과장은 "'2024 대구정원박람회'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정원을 쉽게 접하고 일상생활 속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군민이 빛나는 달성

2024 YES! 키즈존

어린왕자의 과학나라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SCIENTIFY

2024. 10. 19 (토) 오후 1시 | 국립대구과학관 일원

문의 | 053-668-4244

장소하 1500 리시 1900 본부장 1900



행복한 동행 영천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습니다."

- 제보기간: 2024. 10. 7. (월) ~ 11. 5. (화) 30일간
- 감사기간: 2024. 11. 26. (화) ~ 12. 2. (월) - 예정
- 제보대상: 시정 전반(예산낭비, 위법·부당한 사항 등)
- 제보방법: 영천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cjstk0215@korea.kr)



시민의 소중한 바람을 담아
더 나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천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갑균



의원
하기태



의원
이영기



의원
이영우



의원
우애자



윤리특별위원장
김용문



산업건설위원장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
배수예



의회운영위원장
권기한



부의장
김종욱



의장
김선태

